

# 전세계 3대 뿐인 첨단장비, 현대차 '고성능 DNA' 만들다

(다이내믹 K&C)

## Q 르포 | 'N' 개발기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 가다

"(40여년 동안) 현대차의 고성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한 것 같다."

지난 3일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N' 브랜드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현대차의 고성능 N 브랜드의 첫 번째 내수 모델인 '벨로스터 N'을 체험한 참가자는 현대차의 기술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대차는 고성능 N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난달 고성능차 및 모터스포츠 사업을 전담하는 고성능사업부를 신설하는 공을 들이고 있다.

### ◆고성능 'N' 브랜드 DNA 개발 위해 '첨단 장비' 구축

이날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R&H 성능개발동'을 방문했다. 이곳은 현대·기아차가 고성능 차량의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을 별도로 시험·정비하기 위해 2013년 길이 85m, 폭 45m 규모로 개발단지를 완성했다. 실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재현해가며 승차감, 조안성, 조타감 등 주행 성능의 근본적인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14종의 시험 장비로 가득 차 있다.

이날 눈길을 끈 장비는 차량의 선행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제 주행 조건을 재현해 차량 성능을 최적화하는 '다이내믹 K&C'와 '모듈 시험기'다.

다이내믹 K&C는 지난해 완성차 업체

獨 3사도 없는 다이내믹 K&C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설비 갖춰 실제 주행 재현해 향상 방안 도출

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최첨단 설비다. 그중에서도 모듈 단위로 시험할 수 있는 K&C 장비는 이곳 남양연구소가 유일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도입한 업체는 일본의 마쯔다이며, 독일 3사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장비다. 독일 업체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을 정도다.

현대차 연구원은 "다이내믹 K&C는 전 세계에 단 3대뿐인 첨단 장비로 실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너링, 험로주행 등의 조건을 재현한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 부품들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정밀 분석한다"며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감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췄다"고 자 신감을 내비쳤다.

i30 N과 벨로스터 N에 사용되는 엔진은 제네시스 G70 등의 것과 같은 2.0L 터보엔진이다. 그러나 힘을 좀 더 키웠다. 최고출력은 275마력, 최대토크는 38kg·m 까지 나온다. 마력수는 20마력, 토크는 3kg·m가량 높아졌다. 같은 배기량으로 출력을 더 내기 위해 터보차저 용량을 키운 것이다.



현대차 벨로스터 N. (오른쪽)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고속핸들링시험로에서 벨로스터 N이 주행 중인 모습.



### ◆'코너링의 악동' 벨로스터 N 체험

남양연구소 내 다목적 핸들링 시험로 체험코스에서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벨로스터 N을 체험했다. 이곳은 짐카나, 슬라럼, 후연소 사운드, 고속 핸들링 시험로 등으로 구성됐다. 남양연구소 연구원이 동행해 간접 체험했다.

첫 번째로 슬라럼(콘이나 컵을 설치해 차량이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구간)에서 고속으로 속력을 내며 차량의 밸런스 유지를 테스트했다.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N버튼을 누르자 고성능 버전으로 변신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급회전도 거침없었다.

직선 구간에서는 가속패달에 힘을 주자 순식간에 5000~6000RPM을 넘어서며 우렁찬 배기사운드를 자랑했다. 다른 고

성능차보다는 소리가 작았지만 심장이 뛰기에는 충분했다.

이어 트랙 주행을 경험했다. 트랙 시험장은 14개의 코너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등 한 개의 시험로 안에 수많은 서킷의 조건을 담아낸 것이 특징인 주행로였다. 주행로에서 엄청난 급가속 성능에 아찔함을 느꼈지만 급커브에서 기존 국산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빠른 속도로 곡선로를 주행했을 때 전륜(앞바퀴 굴림)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더스티어(운전자가 의도한 정도보다 선회가 적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은 현상은 N코너카빙 디퍼렌셜(E-LSD)이 잡아준다. 양쪽 바퀴의 구동력을 주행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배분해 미끄러짐 없이 곡선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트랙 주행과 슬라럼, 짐

카나로 맛본 E-LSD는 쏠쏠하게 차의 자세를 통제했다. 현대차가 이 차의 애칭을 '코너링의 악동'으로 붙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 고성능차 및 모터스포츠 사업을 전담하는 '고성능 사업부'를 신설하고 BMW M 북남미 사업 총괄 임원 '토마스 슈미에라'를 고성능 사업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고성능 사업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고성능차 사업과 모터스포츠 사업의 국내외 상품 기획과 영업·마케팅을 한곳으로 모아 사업 시너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올해는 i30 N과 벨로스터 N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보안 ↑·비용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LG유플러스

#### IDC에 3가지 클라우드 결합

LG유플러스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AWS(아마존웹서비스) 등 3가지 글로벌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 니즈에 따라 IDC와 클라우드 각각에 IT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IDC와 함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세가지 멀티 클

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사내 보안문서 및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서버와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인프라는 IDC에서 구축 및 운영한다. 이외에 웹서버와 같이 외부 접속이 허용된 인프라는 클라우드에 구축해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할당 받아 운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IDC와 클라우드 각각에 구성된 인프라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일반 인터넷 회선이 아닌 외부와 분리된 전용회선을 사용한다.

고객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에 전문가들로부터 인프라 설계, 분석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프라에 대한 이전 ▲구축 ▲운영 모니터링 ▲장애처리에 이르는 원스탑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포털도 제공한다. 고객은 이 포털에서 IDC와 클라우드에 구축된 인프라 현황, 요금 및 청구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모델들이 'KT 10기가 아레나(KT 10 GiGA Arena)'를 소개하고 있다.

/KT

## KT 잠실에 10기가 체험공간 '아레나' 오픈

KT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프리카 TV 오픈 스튜디오'에 체험공간 'KT 10기가 아레나'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10기가 인터넷은 메가 인터넷 대비 100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대역폭 제공이 필요한 초고해상도(UHD)

영상 서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 받고 있다.

KT는 오는 9월 상용화 시점에 전국 광 인프라 구간 중 55%에 해당하는 구간에

10기가 인터넷을 우선 적용한다. 또 기본 10기가 인터넷 속도 상품 외에도 5기가와 2.5기가 속도의 상품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KT가 인터넷은 출시 3년 3개월만인 지난 1월 가입자 400만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KT 전체 인터넷 가입자 중 10기가 인터넷 가입자(430만명)가 메가 인터넷 가입자(429만명)를 추월했다.

KT는 잠실에 위치한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 내 'KT 10기가 아레나'를 구축, 일반석 중 10곳을 10기가 인터넷 전용 자리로 만들었다.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 잠실점은 약 250평 규모로 143석의 일반PC와 80석의 '배틀그라운드' 전용 경기장을 갖췄다. '배틀그라운드'와 아프리카TV의 자체 진행되는 다양한 e스포츠 리그를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시설과 옴지버, 중계석을 함께 갖췄으며, e스포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일반 고객들도 10기가 인터넷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생일·가족 주소 척척... '감성형 AI' 시동

### SKT '누구' 발화량 20% 늘어

SK텔레콤이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NUGU)'에 미리 등록된 질문을 물어보면 저장된 답변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나만의 질문과 답변(My Q&A)' 기능이 지난 3월 출시 한 달 만에 발화량이 2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My Q&A는 누구 디바이스에 고객이 듣고 싶은 메시지나 기억해야 하는 질문, 선택이 어려운 질문 등 생활 속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최대 30개까지 등록하고, 이를 음성으로 물어보면 질문에 맞게 저장된 답변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다.

My Q&A는 지난 3월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한 달 만에 발화량이 20% 이상 증가해 올해 말에는 질문 등록 개수가 약 8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My Q&A를 이용하는 고객 중 대다수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사랑해', '안녕', '배고파' 등 감성 질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



모델이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와 개인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AI 스피커를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My Q&A를 이용해 가족 생일, 부모님 집 주소, 우리집 우편번호 등 평소 기억하기 어려운 것을 누구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다. My Q&A의 질문은 최소 두 글자 이상 입력이 가능하고 질문과 답변은 비속어, 욕설, 선정성 문구, 개인정보 관련 문구는 입력이 제한된다. /김나인 기자

## 넷마블 '나이츠크로니클' 글로벌 사전등록 시작

넷마블은 모바일 턴제 역할수행게임(RPG) '나이츠크로니클'의 정식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브랜드 사이트 오픈 및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나이츠크로니클은 콘솔 감성의 정통 턴제 RPG를 모바일에서 구현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약 100종 이상의 영웅들이 등장하며 주인공인 테오를 중심으로 가니에르 행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비밀에

싸인 과거를 추적해 나가는 영웅들의 모험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이날부터 출시 전까지 진행되는 사전등록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백색기사단 멤버 중 한 명인 S SR등급 6성 레베카의 지급과, 200다이아, 100만 골드 등 보상을 100% 지급한다.

한편, 나이츠크로니클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40여개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